

건축설계와 건설업, ‘대등의 협력’ 속에 유기적 종합을

Organic Synthesize in Coordinate Corporation

박경립 / 강원대 건축과 교수
by Park Kyung-Rip

어찌 건축인으로서 한 나라의 건설산업이 발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더욱이 요즈음 같이 문호개방의 압력이 거세지는 시점에서야,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근간이 되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건축인은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형상화 과정을 통하여 구축되는 건축이 결코 건설과 동떨어진 분야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분야를 건설산업과 동일시하거나 그의 부속 개념으로 간주하여 한국의 건축문화를 고사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왜냐하면 건축은 단순히 산업의 대상물이 아닌 역사를 지닌 모든 민족들의 삶을 담은 문화의 실체이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책임질 그릇이며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삼풍사고 이후 건축계는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각오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건축문화 창조의 주역인 건축사들도 개방에 대비하며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과 체질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스스로 싹도 피어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된다.

두뇌는 인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적지만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실질적으로 건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설계는 인체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담기 위한 발상, 계획, 설계를 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역사와 문화를 담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상업성이 개재할 공간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들을 교육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건축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려는 것이고, 그것들이 건축이라는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이의 구현과정에 흔히 우리가 문화적 요소라고 부르는 부분과 예술적 부분이 관여하게 된다.

그렇다고, 신체의 다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몸은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를 구현시켜 주는 그릇으로서, 몸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이다.

이 실현의 과정에 건설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는 또다른 창조의 영역이다.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 건축역사의 수난사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발전된 건축기술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건축을 도입하다 보니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잃었던 것이다. 서구의 건축기술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으로 취급하다 보니 그의 역기능을 간과하고 순

기능만이 강조되어 문제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건축을 건설산업의 일부로 취급하려는 태도는 그 기능상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이해되어야 시정될 수 있으리라 본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에 대한 건전하고 비판적인 사고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건축은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산업사회에서 건축이 건설산업과 밀착되어 온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20세기 전반의 건축사조가 기계미학에 바탕을 두고, 생산성 향상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면, 20세기 후반기는 대량생산을 필두로 한 산업사회 속에서 소외되었던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세기였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들이 인간과 환경이라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고민을 시작하였을 때, 분단의 전쟁을 치렀고 그의 복구를 위한 건설에 모든 힘을 다 기울였다. 좀더 빨리 잘 살기 위하여 우리는 건축을 건설의 과제로만 다루었던 것이다. 건축에 관한 업무는 당연히 건설부가 다루게 되었고, 건축교육도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이루어졌으나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건축인들만이 이 문제를 한숨지었지만 거대한 벽 앞에서 스스로 주저앉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새삼스럽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건축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자유경쟁 사회에서는 모든 일의 가치를 다음의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개인적 가치이고, 또 하나는 공공적 가치이다. 세번째는 상업적 가치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상업적 가치이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가치는 각각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현실속에서는 상호대립적 입장에 서게 될 때가 많다. 이같은 대립관계는 건축의 각 가치가 추구하는 이해의 범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갈등관계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건축시장이 개방되는 1997년 이후부터 이 현상이 가속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익히 들어왔던, 산업사회 시대의 생산의 합리화 과정 속에서 매력적으로 들렸던 용어들을 되뇌게 될 것이다. 대량생산, 가격절감, 생산의 합리화, 모듈, 표준화, 생산조직의 체계화,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의 증가, 소득의 증대, 그에

따른 이익의 재투자, 그리고 또다시 대량생산. 이 얼마나 환상적인 순환의 모습이었던가?

우리는 이같은 순환의 과정 속에서 다가올 세상을 새로운 유토피아라 부르지 않았던가?

우리 모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생산과 자본의 축적이 개인과 공공을 위한 선투자로서의 보험이라 생각하지 않았던가?

과연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원하던 것을 다 얻었는가?

건설산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또다시 환상에 빠지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시는 성수대교나 삼풍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튼튼한 거대 조직만이 설계로부터 시공까지를 담당할 것이고,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함으로써 국민들은 아주 싼값에 필요한 공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높아진 경쟁력으로 개방된 시장도 대처하게 되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보다 더 거대한 공룡들이 다가올 것이고, 가격경쟁에 뒤진 우리 기업들은 우리 그릇을 모두 다른 문화에 내주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없이 남의 그릇에 어렵게 적응하며 살게 될 것이다.

혹자는 너무 비판적 생각이 아니냐고 반문할 지 모른다. 그러나 건축은 우리가 그렇게 갖고 닦고 아름답게 유지하려는 언어에 비견할 수 있다.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어 버린 세상에 우리만이 쓰고 있는 한글을 무엇 때문에 고집하느냐며, 영어의 사용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우리는 얼마전 아직도 몇 십년은 더 쓸 수 있는 남산 외인아파트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폭파하였다. 가장 높은 텔레비전 시청률을 보인 이 깜짝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나? 우리가 열광한 것은 첨단 파괴공학의 위대함이었나?

그 위대한 파괴가 보여준 것은 사회적 수명을 다한 건설의 덩어리였다.

거대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 조직의 부분을 일시분란하게 통제하고 독려하게 된다. 그 속에서는 개인적인 욕구나 창의성은 전체라는 이름하에 유보된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예측불허이다.

21세기를 예측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몇 가지의 단어가 있다. 정보화사회, 소프트웨어의 사회, 고도전문화의 사회, 환경친화적산업의 시대, 디자인의 시대, 급변하는 사회, 창의력의 사회 등이 그것이다.

이 시대에 경쟁력있게 살아 남으려면 각 분야가 각자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제고하여야 한다.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잃지 않는 독자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설계는 설계대로, 건설은 건설대로 각자 영역의 전문성을 높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등의 협력관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조직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자 정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방향이 조직의 거대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건축은 산업의 단순한 대상물 이상의 것이다. 우리들은 싫으나 좋으나 건축이라는 그릇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현재 건축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혹은 후기 산업사회의 서비스업은 농경사회의 농업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한다. 농사를 짓는 지혜는 대부분의 농부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것이며, 한 명의 장로에게 집중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다수의 민주적 협동이며, 지혜로운 한 사람에게로의 다수의 복속이 아니다. 건축도 몇몇의 집단에 집중되어서는 안된다.

건축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다. 그리고 이들은 모여서 도시를 만든다. 그러나 모든 건축은 개체로서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 도시와 건축의 관계가 그렇듯이 이 부분과 전체라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부분의 산술적 합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과 부분의 상호관계의 합이 전체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생물이라는 유기체에서는 전체라는 메커니즘이 부분의 논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도 문제가 생기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사의 문제까지도 다다르게 된다. 설계라는 분야도 단지 한 부분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전체 그릇의 문제로까지 파생될 수 있다.

부분과 전체를 다루는 지혜는 우리 민족의 역사속에 깊게 배여있다. 우리에게 뿌리깊게 발전되어 온 것은 화해의 논리이며 공존의 논리이다. 중용이라는 단어는 인간사이에에서만 적용되는 철학 논리가 아니다.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지혜인 것이다. 이렇듯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야는 대등의 협력 관계(일찍이 Walter Gropius는 1920년대에 Bau Haus의 목표를 이야기하며 coordinate corporation이라는 표현으로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상호 협력을 촉구하고 있었다)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일등 증후군」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즈음, '승자 독식 사회' 라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에서도 일류주의가 판치고 있으며, 그에 의한 폐해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하는 질문이 이어질지 몰라도, 문제는 승자가 분배의 미덕을 모르고 끊임없이 독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이긴 자는 극소수이며, 이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병적이고 파괴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간 이윤만을 추구한 기업주의와, 물질적 발전을 우선시하며 무리한 양적 팽창의 고성장 우선주의를 택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우리의 강산은 심한 몸살을 앓아왔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건축은 물질듯이 밀려오는 개방의 물결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같은 여건을 빌미로 세력을 확장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경계되어야 한다.

건축과 도시를 다루는 법은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법은 단지 건축이 그들의 정당한 논리에 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지, 그 성장을 인위적으로 너무 속박하여서는 안된다. 원래 법은 패소자를 가속포대에 싸서 강물에 떠내 보내 신에 불경함을 씻어 버리는 의식을 뜻하였다고 한다.

하나뿐인 지구, 그 속에 우리 모든 역사를 품어준 이 땅을 지키는 일에 절대로 서두르지 말자. 잘 하려는 법이 우리의 터전을 보이지 않게 망치거나 않는지, 우리도 모르게 갖은 자만을 살찌워 주는 것이 아닌지, 정신의 황폐화 속에 물질적 풍성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그간 문민정부는 재벌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설계분야도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건축설계 분야의 보호는 이 땅 위에 문화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다루어져야만 한다. 농업을 보존하는 것이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듯이 건축을, 특히 설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문화안보 차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진정 손익계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